



“질질맞은 오 과장. 노가리 까다 박 부장한테 낭패를 봤다며, 전날에는 고무망태가 돼 실려 가더니만. 오늘 지각해놓고 시치미까지 댔네.”
 “간이 부었지, 사바사바해도 모자랄 판에. 게다가 박 부장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것도 모르고 하룻강아지처럼 대들었다 거덜났다지. 아마”

일상에서 건진 우리말 맛깔나네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2 조항범 지음 각 권 9천원 예담 펴냄

우리말이지만 과연 이 대화에서 사용된 말들의 뜻과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갈매기살, 마누라, 사바사바, 도루묵, 건달, 거시기, 을씨년스럽다’ 등과 같은 말들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거덜났다’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거지들이 덮고 자는 거죽에서 유래했다고! 미안하지만, 아니다. 거덜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가마나 말을 돌보는 종을 가리킨다. 말똥 따위를 치우는 낮은 신분이지만 뒷사람이 행차할 때 ‘들렸거라’ 소리치며 행렬 앞에서 우쭐거리는 노비를 일컫는다.

여기서 ‘거덜거덜’ ‘거드름’이란 말이 나왔고, 이것이 몹시 흔들거린다는 의미로 바뀌면서 재산이나 살림이 허물어진 것을 지칭하게 됐다.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2》는 이처럼 일상에서부터 비속어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100가지의 유래와 어원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또 잘못된 우리말 쓰임을 바로잡고 엉뚱한 가설이 정설로 둔갑해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도 짚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올 6월 한 달간 10대에서 50대 1만3천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상한’ 말들을 담고 있는 점에서 독자의 눈길을 잡는다.

1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뜻도 잘 모른 채 무심코 쓰거나, 뜻은 알지만 자세한 어원을 모르는 말들을 위주로 베스트 50가지를 뽑았다.

‘마누라’ ‘을씨년스럽다’ ‘건달’ ‘하룻강아지’ ‘어찌구무였다’ 등이 대표적이다. 2권에서는 ‘사바사바’ ‘거시기’ ‘십팔번’ 등 어원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칠만한’ 비속어 50가지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우선, 책에서는 말이 당대의 시대정신과 분위기



그림 제공=예담

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가령 쓸쓸하고 스산한 풍경을 표현할 때 쓰는 ‘을씨년스럽다’는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을사년의 비통함과 허탈함에서 유래했다고 그 어원을 설명한다.

또 조선시대 억압받던 불교의 모습을 반영한 말들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질서 없이 어지러운 현장을 비유하는 ‘아사리판’, 끝장을 뜻하는 ‘이판사판’, 게으르고 무능함을 일컫는 ‘건달’ 등의 말이 그런 예들이다. 이외 ‘양파’ ‘제비죽’ ‘짱’ 등 사회상을 담은 말들도 소개한다.

책은 무엇보다도 어원에 대한 국어학적 설명과 그 정확한 출처를 풍부한 사료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다. 어원이 한글인지 한자어인지, 발음상의 유사점으로 엉뚱하게 어원을 곡해·외전시킨 가설은 없는지, 본래 어원과 지금의 뜻이 축소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고유어식 ‘김치’가 한글이 아닌 한자어인 ‘침채(沈菜)’에서, ‘내송’이란 말이 ‘내홍(內凶)’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자 어구리(魚走九里)로 알려진 ‘어쭈구리’, ‘헝가래’ 등

은 그 어원이 한글이라고 제시한다. 또 태도가 분명치 않을 때 표현하는 ‘감질나다’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말임에도 맛을 나타내는 ‘감질맛나다’와 혼용됐고, 한 살 된 강아지를 의미하는 ‘하룻강아지’가 ‘하룻강아지’로 와전된 점도 사례로 들고 있다. 이 밖에 남자 동기를 부르던 말이었던 ‘오빠’, 지체 높은 여성과 남성을 부르던 ‘마누라’ 등이 오늘날에 그 의미가 좁아져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을 덧붙이고 있다. 인종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뜻하는 ‘튀기’, 이야기가 결결로 샌다는 ‘삼천포로 빠지다’ 등은 편협한 인종차별, 불쾌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말들이기에 조속히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이 조항범 교수(충북대 국문과는 출간 배경에 대해 “방대한 참고문헌과 검증된 자료에 근거해 우리말 어원에 얽힌 설화와 유래설이 어떤지를 다채롭게 묶어봤다”며 “뜻도 모르고 쓰던 현대인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말의 밑뿌리를 알게 되면서, 일상의 대화가 즐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땅 10평보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 이선욱 지음 | 조선일보 | 1만4천원

2004년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주식시장의 파동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 할 것인가? 돌아보고 예측하고 결론짓길 십수 년. 주식시장에서 눈을 뜨는 과정은 미혹(迷惑)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피안(彼岸)으로 건너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선의 세계에 비유된다.

주식투자에 발을 들인 것을 불운의 시작으로 원망하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 씨알이나 먹힐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들었다. 막강 부동산에 견주어 주식에 투자하려는 강렬한 메시지가 눈에 들기는 했지만 되도 않는 잔재주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여러 주식관련 서적 중에 하나이거나 하는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법한 선입견은 책 초반부를 지나면 무너지고 만다. 필자가 말했듯이 어렸을 적 삼촌에게 들었던 무용담처럼 흥미진진한 사례들이 부딪 없이 전개된다. 복잡한 이론보다 성공 투자자들의 경험을 기초로 진정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 인지를 일깨워 주는데 필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한 듯 보인다.

책 전편을 통해 필자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입각한 가치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가라는 것이다. 부동산에 물어두듯이, 적금처럼 소액을 꾸준히 납입하듯이, 예금에 묶어두고 기다리듯이 주식투자의 습관을 바꿔야만 수년 뒤 성공한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대박환상 버리고 대박 잡기(?)

《땅 10평보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에서는 적어도 3년 이내에 2000포인트에 근접하는 활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다. 정말로 그럴 것이지 우리는 관철해야한다. 불교 경전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공감경》이다. 그 중에서 일합이상분(一合理想分)은 내 현실의 직업에서 나를 항상 긴장시키는 부분이다. 진여본체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세계가 알고 보면 하나라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무심하고 여유하게 관찰하고 거시기 거품을 벗어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돈에 관해 포괄적인 관찰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모두 전문성을 강조하느라 자기 이야기만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아니다. 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 맑은 마음만으로 추리하면 하면 된다.

하지만 필자는 폭발적 활황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발길 닿는 모든 땅이 서너 배가 울랐어도 소외된 사람들의 탄식이 난무하는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식투자의 성패가 후천적 학습보다 유전적 인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판단한 필자는 주식에 투자하면 절대 안패는 10가지의 유형을 아주 세밀하게 정렬해 놓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성공가능성이 적은 투자자들은 애당초 간접투자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대박의 환상을 버리고 원저하게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대박이 주어진다. 이것이 《땅 10평보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라》의 핵심이다. 이제부터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란 점에 공감한다. ■우승택 (삼성증권 총로터지점장)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봉화 죽서사 주지)-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동선원장)-비우고 위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美 비탈리 육조사 주지)-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단박 계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경허·만공 선사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www.yosiamun.com 총로터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어서아문

